

‘빛의 도시 프로젝트’ 깊어가는 고민

정부, 고강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광주 광엑스포 봄 조성·경관 조명 차질

광주시가 추진해온 ‘빛의 도시 광주 프로젝트’ 등 도심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초고유기의 여파로 빛을 잃게 됐다.

정부가 국제유가 폭등에 따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고강도 에너지 절약 책을 추진하기로 해 야간 조명시설 설치·운용을 골자로 한 도심경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야간경관·밝은 도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최근까지 18여억원을 들여 중외공원 무지개 다리, 문화예

술회관, 비엔날레전시관 등 10여곳에 대한 야간 경관연출 사업을 완료, 조명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 광주전 남광교 등 5개 다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5억8천여만원을 들여 추진해온 교량 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 시험 가동하고 있다. 야간경관 밝은도시 사업과 교량 경관 개선 사업의 골자는 건물 외벽과 교각에 LED등 첨단 조명시설을 부착, 운용함으로써 빛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에너지 절

약 대책 중 하나로 기념탑과 분수대, 고당 등을 밝히는 경관 조명을 15일부터 중단토록 함에 따라 조명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았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남광교, 학강교, 양림교 등 5개 교량은 조명기기의 안정성 점검을 위해 한 달 가량 시험 가동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특히

에너지 절약대책이 장기화할 경우 이를 시설을 활용한 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 봄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8일 에너지 절약 대책회의를 열고 야간경관 조성 사업, 교량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들의 조명가동 시간 조정과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빛의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 공을 들여온 사업들의 성과가 고유가 여파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할 것 같다”며 “이미 조성한 조명 시설의 경우 정부방침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7일 ‘난국 해결’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갖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론 통일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한 뒤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극복 국론통합을”

전국 16개 시·도지사협 호소문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7일 최근

두달 가까이 열린 촛불집회 등으로 정

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정 운영의 기초를 ‘화합과 포용’으

로 삼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

해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광태 광주시

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들이 참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우리도 정부와 국

민의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소통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

며 “시민경제 안정대책과 며거리 안

전 등에도 혁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

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 직후 청

와대를 방문, 호소문을 전달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부 쇠고기 원산지 단속 ‘후퇴’

영세상인 등 반발 우려 특별단속 10월로 미뤄
인력도 크게 부족…소형 식당은 계도 대상 규정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방침이 크게 후퇴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을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 3개월 뒤인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지난 5월말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규칙 발효와 함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수산부는 또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하위과 시’의 경우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00m 미만 소규모 식당의 경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단속’이 아닌 ‘계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알고 먹을 권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방침 후퇴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모든 음식점 모든 종류의 쇠고기’라는 단속기준에 현실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쇠고기 몇 조각

의 원산지를 단속한다는 것이 실현성이

없는데다 단속인력도 크게 부족해 내실 있는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산지표시 제도를 자취하고 있는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도 이와 관련,

“그 많은 식당을 모두 단속할 수도 없고, 모두 단속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한다”며 말을 끊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5월 결집을 수 없이 약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역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한 끝이 됐다.

악화된 여론을 디스 무마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긴 했지만 막상 시행시점에 이르자 기금급수적으로 불어난 행정단

속 대상과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연합뉴스

日만정

- 김종우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지하철·버스·철도 이용

광주 ‘원 카드 올 패스’ 시범지역 선정

인사말씀
이번 先駕(故 고개기)-前, 전남대 교수·서강정보대학장 眾事時 바쁜 중에도 鄭重하심 意志를 배울 여주신 여러 어르신께 感謝를 드립니다. 儀化中 일일이 찾아뵙지 못함을 좌송스럽게 생각하며 우선 紙面을 통해서 고개숙여 人事를 드립니다.

2008년 7월 8일

이들 고 대 석
천 석
율 영 남
자부 양 윤 하
하 승 회
시위 송 종 운

산행안내

신행안내 접수는 정확한 내용 기재를 위하여
팩스 및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교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므로 많은 양해 바랍니다.
FAX : 227-9500, E-Mail : dd8111@hanmail.net

7월 9일(수)

▲광주금강산악회 광주 광산 7월12일(수)

6시간 연주회와 춤과 경기 등

1007-4363-4000

8시 광주역 출발 ※디스카운트

1011-602-3709

▲광주기독교대병원 대봉산 7월19일(수)

8시간 동안 대내·내장·외상·정형·외과 등

면역·신체기능·운동 등

1007-4303-2020

분에 후반 경기 등

*디스카운트

7월 10일(목)

▲무등도요산악회 지리산 7월14일(목)

5시간 운행과 함께 출발

1007-694-8000

7시 40분 출발 1007-694-8000

*디스카운트

7월 11일(금)

▲광주도요산악회 낭구유산 7월10일(금)

5시간 운행과 함께 출발

1007-694-2729

7시 30분 출발 1007-694-2729

*디스카운트

7월 12일(토)

▲광주부전시민운동회 출발

7월 13일(일)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3일(일)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3일(일)

*디스카운트

7월 14일(월)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4일(월)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4일(월)

*디스카운트

7월 15일(화)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5일(화)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5일(화)

*디스카운트

7월 16일(수)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6일(수)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6일(수)

*디스카운트

7월 17일(목)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7일(목)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7일(목)

*디스카운트

7월 18일(금)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8일(금)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8일(금)

*디스카운트

7월 19일(토)

▲빛고을 블레어크학습장 7월19일(토)

21시 30분 협주석과 춤과 경기 등

1007-821-2800

7시 30분 출발 7월19일(토)

*디스카운트

7월 20일(일)